

“연구자로서 따뜻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10년 헌혈에 골수기증까지 전북대 장성일 교수 나눔 실천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헌혈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장성일 교수(35)는 10여 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다. 헌혈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 조혈모세포(골수)까지 기증기로 해 다음 달 백혈병 환자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가 이식된다고 전했다.
 장성일 교수는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헌혈을 했다. 이후 헌혈에 대해 알고 있다가 2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교수는 “누구나 착하게, 그리고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헌혈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오고 있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헌혈을 해오던 중 지난해 여름 담당 간호사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권유를 받

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 이에 장 교수는 곧바로 등록을 했고, 지난 3월 유전자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건강검진까지 최근 마쳤다.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장 교수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한다.
 장성일 교수는 “조혈모세포를 뽑는 것이 요즘은 예전같이 아프지 않다고 들었다. 설령 아프더라도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덜 아플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헬리코박터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장성일 교수는 “난 운이 좋아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사는 것이 양심에 덜 거리가 없는 삶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대학의 모토처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따뜻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장성일 교수



전주대 LINC+, ‘글로벌 워크숍’ 발대식 가져

전주대학교 LINC+혁신선도대학사업단(단장 한동욱)은 지난 12일 ‘글로벌 워크숍(Global Workshop)’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워크숍을 통해 의·식·주 등 지역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IoT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전주대 학생 14개 팀, 64명이 참여해 디자인, 패션, 스마트미디어, 건축, 한식조리 등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스마트미디어 분야에서는 구글, 인텔, 아마존, 스탠퍼드 대학 등을, 패션산업 분야에서는 뉴욕의 양대 패션학교인 FIT와 퍼스 디자인 스쿨을,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일본 비즈니스파크와 첨단 과학기술관 등을 방문한다. 학생들은 현지 우수 기업과 대학에서 실무형 기술 습득하고 벤치마킹,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하여 폭넓은 국제적 안목 배양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호원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이하 호원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호원대학교에서 체결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호원대 강희성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태권도 진흥·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연계 가능 사업 협력 추진’을 비롯해 ‘각종 캠프 및 학교단체 체험학습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견학 추진’, ‘호원대의 MT, OT 등 주요 행사 시 교직원 연수 장소로서 태권도원 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태권도진흥재단과 호원대학교가 협력해 국내외 태권도 진흥과 보급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정읍경찰-아름다운 가게, 범죄 피해자 지원 바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13일 아름다운 가게 정읍수성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정읍경찰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와 지역 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정읍경찰서 전 직원이 동참, 물품을 기증하고 정읍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당일 수익금을 제도 밖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특히, 고명희 경무계장과 생활안전과 노동곤 경위는 최다 특별 물품 기증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고, 경찰업무 홍보와 동시에 방문자 대상 네일아트 체험 부스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제25회 2019 JB 인문학강좌' 펼쳐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제25회 '2019 JB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좌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250여명을 대상으로 '부시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의 저자인 오현호 파일럿을 초청하여, '내 삶을 바꾼 30일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오현호 강사는 “두려움이란 경험의 부재가 만들어 낸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꿈도 없던 수능 7등급 출신의 학생에서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와 삼성전자에 사표를 던지고 파일럿의 꿈을 이룬 이야기, 45개국 세계일주와 250km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 등 자신의 경험과 도전을 통한 인생의 변화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소방서, 교통사고 환자 닥터헬기 이송

남원소방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반경 금동에서 차로인한 자전거 교통사고 환자(1명)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 김모(71)씨는 사고로 좌측 발목부위 감각저하 및 개방성골절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남원소방서 구급대는 환자의 상태확인 후 부목고정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닥터헬기를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지구대, 이륜차 사고 예방 앞장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는 이륜차 집중 단속 및 홍보기간(5.20~8.31)을 맞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조 장구가 미비한 이륜차 및 경운기에 아광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교통사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동지구대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운전자 증가하고, 주문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안전이 증가하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개최

남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초동마루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부서별 단편적 판단에 의해 경찰조치 및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다 보면 현장조치 미흡사례나 정책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에 따라, 각 기능간 연결·조정·협업(3C) 활성화로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불안신고와 여성안심귀갓길 주변의 범죄예방시설물 확대 설치 등 기능별 범죄예방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 기관·단체 등 공동체회의의 범사회적 파트너십 조성을 위해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